

##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지원심의회의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00~12:00, 2022년 12월 5일(월) 09:30~13: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명철, 노희준, 이영주, 이정록, 주지영

이번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은 차세대 유망 예술가가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중견작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작 심화 프로그램 과정과 최종 발표행사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신청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선정자가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의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분야 사업에는 총 19인의 작가가 지원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지원자가 증가했고, 지원신청서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 분야 심의위원들은 한 달 가까이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등을 전수 검토한 후 2차에 걸쳐 대학로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에서 만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신청사업에 대한 전수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후, 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참여해 서류 심의를 진행하여 2차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심의에서는 신청자의 심층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이 개별 채점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합산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지원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꼼꼼히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의에 관련된 유의사항과 심의참여 시 제척, 회피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8인의 작가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 과정과 결과물 산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세대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자기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문제의식이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본질적인 측면에까지 나아가 있다는 점에서 2022년의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 작가들의 치열한 고투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창작 과정에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성작가의 작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협업 과정의 양태를 이어받은 점이라든가, 청년세대 작가만이 갖는 선명한 독창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모습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청년 세대 작가가 갖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해당할 것입니다.

심의에 참여해 주신 지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정된 분들 모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창작세계를 구축하고, 좋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4:00~16:00, 2022년 12월 12일(월) 9:30~13: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혜수, 안진국, 채은영, 최승현, 홍진훤

20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만 39세 이하의 차세대 유망 예술가를 발굴하고 리서치, 창작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예술가는 <차세대 열전 2023!>을 통해 작품 발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올해 시각예술 분야에는 총 50명의 예술인이 지원하였고,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8명의 예술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의는 신청자의 역량(30%), 작품의 예술성 및 우수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30%)의 심의 기준을 토대로 1차 전수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후 토론심의를 거쳐 2차 인터뷰심의 대상자 12인을 선발하였습니다. 선정된 12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예술인을 선발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 전시 지원사업이 아닌 1년 동안 단계별로 과정을 거치며 작가의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고려해 이를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작가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작가의 성장 가능성을 주요한 심의 지표로 삼았으며 내용과 형식을 고루 검토해 작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예술적 목표의 구체성과 작가가 탐구하는 고유한 조형언어를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안 내용의 충실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지원자가 수립한 예산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동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미술적 실천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또한 많은 지원자들이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에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청년예술가의 자율성에 기반한 멘토링이나 워크숍도 필요하지만 예술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예술아카데미라는 사업명에 걸맞게 지원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내실 있는 과정형 사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 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14:00~16:00, 2022년 12월 13일(화) 09:30~13: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남지수, 변유정, 신경미, 이인복, 정재엽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은 차세대 유망 예술가가 리서치, 창작 워크숍 등 창작심화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행사(<차세대 열전 2023!>)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술가로서의 고유한 세계관 및 한 단계 도약한 예술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에는 총 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인의 심의위원은 약 한 달에 걸쳐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를 사전검토하여 전수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차 현장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전수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각자 10인의 지원자를 추천하였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12인의 인터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 현장심의는 지원자의 심층 인터뷰 심사로, 심의위원들은 신청자의 역량(3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의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채점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산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지원대상자 8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심의에 관련한 유의사항 및 제척, 회피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공연예술이 갖는 관습들에 저항하는 실험이나 동시대 새로운 연극형식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을 장착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엿보였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희곡, 배우, 극장이라는 틀이나 규범을 벗어나기 위한 실험적 구상들이나 돌봄과 양육, AI와 인공지능, 페미니즘 등을 소재적으로 다루는 작업들이 여럿 눈에 띄었는데, 추측건대 코로나19 및 격렬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공연예술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과 일상의 성찰들을 연극적 사유로 녹여내고자 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이 1년 동안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작업이기에 리서치와 워크숍 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창작진 구성은 적절한지, 아이디어와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물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등을 두루 살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셉은 흥미롭지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스럽다거나 선정을 위해 다소 과도한 계획이 서술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도 두루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교육(참여)에서 공연까지, 준비에서 실행까지 지원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자의 부

담감이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사업이 창작결과물의 가치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 프로덕션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듀싱/기획과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아카데미 지원 체계에서 이러한 서포트가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에 선정된 분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모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만의 고유한 창작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회원 일동

##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4:00~16:00, 2022년 12월 7일(수) 09:30~13:3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예림, 김재리, 남지원, 박재홍, 장광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용분야는 신진예술가들이 체계적인 창작 및 리서치 단계를 거쳐 작품을 구현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작품 지원사업과는 달리 예술가들의 역량과 작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이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예술가생애 첫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사업에 무용수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여럿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의 틀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사업의 지원자들은 39세라는 연령의 폭이 넓은 만큼 계획서의 질적인 측면과 경력에서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 사업 중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것도 다수 있었으나 적지 않은 사업들이 작품의 소재나 작품을 풀어나가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새로움이나 실험성의 부족이 눈에 띈 점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환경, 소수자, 젠더, 비인간 등 동시대 사회문제를 자신만의 관점과 감수성을 통해 예술작품으로 연결시키려 고자하는 노력이 엿보였으며, 기존 무용과 예술 형식에 대한 메타비평과 형식적 실험의 제안 등 무용의 확장성 측면에서 고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의의 과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장르적, 주제적인 안배보다는 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최종결과물인 공연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에 합의했습니다. 공연하고자 하는 작품의 콘셉트가 예정하고 있는 공연장과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작품의 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자들의 작가로서의 문제의식과 작업의 질문이 구체화되었는지, 창작 과정을 충실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품 구현을 위한 안무적인 전략이 구체화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작업의 주제적 측면에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식과 개념이나 맥락으로 구체화되었는가를 판단했으며,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 형식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도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공적인 측면을 작업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뷰 심사에서는 작업에서 다루고자하는 개념과 관점에 대한 사전리서치가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창작 및 리서치 과정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질문했습니다. 심사는 심의위원들의 점수의 평

균치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창작과정, 리서치의 방법과 내용, 무대 구현, 예산 배정 등의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토론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창작과정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도 요구하는 사업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지원자들이 다소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호흡으로 사업에서 제공하는 워크숍, 네트워크, 기획, 제작 등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안무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회원 일동

##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9:30~12: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병량, 고윤화, 서홍준, 이종은, 최연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 사업은 차세대 유망 예술가의 리서치, 창작 워크숍 등 창작 심화 프로그램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창작자 고유의 예술세계관을 구축하는 과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신진 예술가를 넘어, 최종발표행사인 ‘차세대 열전 2023!’에 참여할 예술가를 선정하여 자신의 대표작을 준비하고 차후 발표함으로써 이 작품이 창작자의 대표작 혹은 연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의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신청자의 역량(30%), 작품의 예술성 및 우수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 측면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으며, 각 분야별(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총 35명의 전문심의위원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진행은 먼저 1차 서류 심의를 거친 후,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음악 분야는 행정결격대상 없이 7건 모두 2차 심의 선정대상이었으며, 2차 인터뷰 심의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음악분야 심의에서는 활동 경험이 많은 차세대 유망 예술가들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기존 자신이 활동하던 영역 외에 새로운 장르를 융합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적 요인의 변화 등에 대한 고민이 담긴 내용이나 새로운 형태의 기획도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기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이어나갈 프로젝트 상세 계획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신청자들은 온라인 비대면 인터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과 꿈꾸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소개했으며, 발표 후에는 심의위원들의 몇 가지 질문이 이어졌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실제 신청자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높은지, 또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지녔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심의는 이번 사업이 무엇보다 한 작품을 심화시켜 발표하기까지의 전 과정 (멘토링, 네트워킹 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착안해 구체적인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은 향후 멘토링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진행했으며, 다만 신청자의 역량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꼼꼼하게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본 심의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본 지원 사업을 한 신청자가 예술가로서 참여를 하는 것인

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획자로서인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의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두 가지 형태 모두 신청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중치를 둘 수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지라도 기존 단체나 그룹에서 진행되었던 구성원이나 내용에 연장선상이 아닌, 충분히 자신만의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기획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자는 충분한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획적 아이디어가 잘 드러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잘 제시한 지원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예산은 전년도 지원현황과 올해 지원신청현황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자가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을지라도 전혀 본인의 가능성이나 역량이 불충분하다고 여기지 말고 계속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도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본인의 예술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무엇보다 내실을 기하는 성장의 과정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길 심의위원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9:30~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권준성, 김성주, 김창수, 문신원, 송정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 유망 예술가가 리서치, 창작 워크숍 등 창작심화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 참신하고 고유한 세계관을 구축하여 최종발표행사인 <차세대 열전 2023!>을 통해 향후 자신의 대표작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의는 신청자의 역량(30%), 작품의 예술성 및 우수성(4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30%)를 기준으로 총 5인의 심의위원이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심의까지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1건의 지원자가 신청하여 1,2차 심의를 통해 최종 1건을 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비대면 화상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원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과 향후 작품으로서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일회성으로 공연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예술적 성장과 창작발전을 위한 돕기 위한 지원사업 이기에 그에 맞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원을 하고자 심의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수한 지원자의 참여율이 타분야에 비해 너무 저조했습니다. 2024년 지원 때는 보다 높은 참여가 이루어져서 본 사업을 통해 좋은 작품들이 소개되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다원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다원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4:00~16:00, 2022년 12월 8일(목) 9:30~12: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건희, 김지연, 김태희, 이수정, 정두용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할만한 차세대 유망 청년예술가를 선정하여 단순 지원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창작 워크숍 등 창작 심화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작가만의 참신하고 고유한 세계관을 구축, 최종발표행사(<차세대 열전 2023I>)로 향후 자신의 대표작이자 연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원예술은 기존의 장르나 한정된 매체를 뛰어넘어 융복합, 탈장르, 탈경계 등 형식이나 조건 제약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험을 갈망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청자의 역량과 작품의 예술성과 우수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르게 심의하였으며 특히 기존 예술 활동 실적을 토대로 예술적 역량 뿐만 아니라 청년 작가로서 발전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실행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하며 참신하고 독창적인지, 해당 예술분야에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참여진의 구성, 연간 계획, 예산 계획, 아카이브와 홍보 등 확산 계획 등이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세부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을 통해 독창성이나 실험성을 가지면서도 예술가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명확하고 그 실험과 표현 방식이 잘 내재 되어 있는 작품을 선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지원자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자면 스스로의 질문과 감정 같은 개인적인 것들을 작품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작품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1차 서류 심의에 이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터뷰 2차 심의는 지원 작가들의 강점과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선정작가들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작가로서의 방향성이 명확하여 앞으로 작업의 과정과 실연이 기대됩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사업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과 같이 지원 경험이 없는 예술가를 위한 것이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본격적인 중견 예술가로 들어가는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분들은 다원예술에

서 중요시하는 것은 과정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올해 아카데미 사업 수행을 통해 리서치부터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킹, 소통, 아카이빙으로 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경험하여 과정에서의 예술성과 다원성을 함의하는 작업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23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다원예술분야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